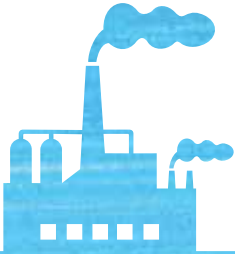


인천시민 구술생애사

만석동 사람들

인천연구원 엮음



정성자 · 김명자 · 김철관의 삶

발간사

인문도시연구총서는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서 인문정보 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변화하는 인천시와 시민들의 삶의 흔적들을 발굴하고 기록하여 발간한 결과물입니다. 2013년부터 인천시민생활사를 주제로 단행본을 제작해 왔는데, 올해는 열 번째로 『만석동 사람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만석동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만석동에 얽힌 이야기들을 시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만석동은 개항 이후 해안매립이 진행되면서 공업지대로 성장한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자리 잡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만석동 사람들』에는 만석동 최초의 낚시 가게를 열었던 어머니를 이어 2대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정성자 씨, 제주도에서 남편을 따라 정착한 원평이부리 마을에서 60년간 거주하신 김명자 씨와 따님 권기분 씨, 한국전쟁 때 평안남도에서 피난 와서 만석동에서 선박 일을 하시면서 87년을 거주해 오신 김철관 씨, 운영하셨던 굴막 이야기와 함께 옆에서 크고 작은 동네 일상들을 구술해 주신 나형식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발간을 위해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삶의 이야기를 들려 주신 여섯 분의 구술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구 경로당 어르신들과 인천쪽방상담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문도시연구총서는 이번 책을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생활사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앞으로도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역사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 인천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2월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차례

발간사_4

1. 만석부두 최초의 낚시 가게 - 구술자 정성자의 삶

⊗ 꿩이부리 선창이라 불리던 만석부두

- 만석부두 최초의 낚시 가게 • 14
- 대나무 낚시대와 직접 만들었던 봉돌 • 18
- 동네잔치처럼 하던 대굿 • 20
- 무궁무진했던 어릴적 놀이 • 23
- 김장철 풍경과 엄마 • 26

⊗ 부두의 변화와 기억

- 똥마당과 선상 파시 • 28
- 빨간 흙길이었던 만석부두 • 31
- 해방촌과 굴막 • 35

⊗ 한국관유리공장에 대한 기억

- 멀리서도 가지러 왔던 모래 • 40
- 유리 닦은 물로 목욕하던 광경 • 41

⊗ 운명처럼 시작한 낚시가게

- IMF 때 시작한 낚시가게 • 44
-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 • 47

2. 팡이부리마을, 60년 - 구술자 김명자의 삶

⊗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

군부대로 날랐던 떨감 • 53

큰아버지에 대한 기억 • 55

⊗ 인천 정착기

남편을 따라서 오게 된 인천 • 57

뜻하지 않은 밤손님 • 59

⊗ 1960, 70년대 만석동

집집이 불어살던 시절 • 61

원목 나무껍질을 때던 시절 • 64

형편없었던 꿀꿀이 죽 • 67

⊗ 보충 구술자, 권기분 • 71

3. 만석동에서 60년, - 구술자 김철권의 삶

☞ 한국 전쟁과 피란길

평안남도 진남포시에서 인천시로 • 83

☞ 만석동에 대한 기억

내가 살던 곳, 사삼번지 • 87

대성목재가 있었던 자리, 만석비치타운 • 90

생계를 위해 시작한 선박일 • 92

수문통에 대한 기억 • 96

마지막으로 남길 말 • 98

☞ 보충 구술자, 나형식 • 99

사진 차례

〈사진 1〉 원랭이부리마을 초입 (출처: 편집자 촬영).....	14
〈사진 2〉 구술자 정성자 씨 부모님 (출처: 구술자 기증)	15
〈사진 3〉 성복상회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 (출처: 구술자 기증)	16
〈사진 4〉 대나무 낚시하는 모습 (출처: 구술자 기증)	18
〈사진 5〉 초소가 있던 해양경찰서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27
〈사진 6〉 북성포구 선상 파시 (출처: 구술자 기증)	29
〈사진 7〉 철거 중인 집 (출처: 구술자 기증).....	32
〈사진 8〉 철거 전 동네 전경 (출처: 구술자 기증)	32
〈사진 9〉 집 앞 눈사람 (출처: 구술자 기증).....	34
〈사진 10〉 해방촌 (출처: 구술자 기증).....	35
〈사진 11〉 철거 직전 굴막 전경과 조선소 (출처: 구술자 기증)	37
〈사진 12〉 굴막 앞 조선소 (출처: 구술자 기증)	38
〈사진 13〉 해양경찰서 뒤편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42
〈사진 14〉 민쟁이 (출처: 인천광역시사(2002))	43
〈사진 15〉 운영 중인 낚시가게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45
〈사진 16〉 운영 중인 가게 앞에서 구술자 정성자 씨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48
〈사진 17〉 만석부두 전경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58
〈사진 18〉 갯이부리말 소공원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62
〈사진 19〉 갯이부리말 공동작업장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64
〈사진 20〉 만석부두 당시 모습 (출처: 동구청)	66
〈사진 21〉 갯이부리말 골목길 현재 모습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74
〈사진 22〉 당시 집에 있었던 만석동 풋살 경기장 전경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86
〈사진 23〉 당시 대성목재 원목 저장소 (출처: 인천광역시사(2002)).....	90
〈사진 24〉 만석동 소재의 가게에서 구술자 (출처: 구술자 기증).....	93

일러두기

1. 구술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살리고자 했습니다.
2. 구술 내용 중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괄호나 각주를 활용해 부연했습니다.
3. 출처 표기가 없는 사진은 구술자 혹은 면담·구술채록자가 제공한 것입니다.
4. 본문에 사용한 편집 기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사투리나 잘못된 외래어 등의 표준어 표기나 문맥상 그 의미를 표시.
 - [] 인터뷰 상황을 나타내는 글 표기.
 - …… 구술자가 구술을 중단하거나 말을 줄일 때 표기.

∞ 팽이부리 선창이라 불리던 만석부두

『팽이부리말 아이들』¹이라는 책 아시죠? 사실은 여기가 팽이부리마을인데 그 책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책의 배경이 된 동네가 ‘팽이부리마을’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바꾸기가 힘들니까 하는 수 없이 여기를 ‘원’자를 붙여서 ‘원팽이부리마을’이라고 하게 됐어요. 원래 팽이부리마을이라고요. 팽이부리라는 이름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옛날부터 전해오던 말이 여기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섬이 팽이부리 갈매기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여기를 팽이부리 선창이라고 불렀대요.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고양이의 팽이가 아니라 팽이부리 갈매기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섬이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내가 어렸을 적에는 여기를 만석부두가 아니라 팽이부리² 선창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쭉 살아왔어요. 내가 태어났을 적에는 이 동네에 집이나 가게들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열여덟에 시집와서 바닷가 앞에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산 게 시작이었죠. 물이 들어오는 밀물 때

1 김중미. 2000. 창비

2 팽이부리 갈매기가 많았던 곳 또는 산부리가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팽이부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음



<사진 1> 원경이부리마을 초입 (출처: 편집자 촬영)

는 이 앞까지 물이 가득 차고 바닷물이 나가는 썰물 때는 그릇이 둥
둥 떠다니던 그런 곳에서 내가 태어나고 살아왔어요.

만석부두 최초의 낚시 가게

우리 엄마는 열여덟에 시집을 왔어요. 엄마가 열여덟이고 아버지가

스물일곱이실 때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이게³ 부모님 젊었을 적 사진
이에요.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군대 생활을 하시다가 상이군인이 되
셨고 나중에는 엄마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엄마는 영종도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랑 소개로 만나 결혼해서 이
동네로 오셨어요. 당시는 배움도 약하고 돈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바닷가에 조그맣게 가게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살면서 장사를 시작하



〈사진 2〉 구술자 정성자 씨 부모님 (출처: 구술자 기증)

3 〈사진 2〉



〈사진 3〉 성복상회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 (출처: 구술자 기증)

신 거죠. 옛날에는 철거를 많이 당했어요. 물가에 무허가로 집을 지어 놓았으니까 시에서 나와서 그걸 허물었거든요. 판자때기로 만들어 놓은 집이었는데 시에서 그걸 부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아버지가 그 자리에 다시 가건물을 짓고 또 몇 개월 있다 시에서 허물러 나오고 그렇게 수년간을 반복하다 결국 국유지를 돈을 주고 사서 집을 짓고 살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하시던 가게가 이 동네 최초의 낚시 가게였거든요. 엄마가 결혼할 당시는 동네에 낚시배 같은 것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여기서 쪽 사셨으니까 엄마가 바로 이 마을의 산증인이시죠. 부두 쪽으로 가다 보면 성북낚시라고 보일 거예요. 거기가 엄마가 운영하시던 가게예요. 당시는 지금 같은 낚시 가게들은 하나도 없었고 엄마가 하시던 가게가 유일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네 가게는 입구도 길고 규모도 제법 컸어요. 처음에는 성북상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성북낚시로 상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런 기록이 간판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셔서 작년까지 하셨으니까 가게를 육십 년도 더 하신 거죠.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에 계시지만 작년까지는 직접 운영하셨어요.

대나무 낚싯대와 직접 만들었던 붓들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가게에서 항상 대나무 낚싯대를 묶어놓고 팔았어요. 낚싯대 끝에 동그랗고 작은 붓들을 하나 달고 지렁이를 끼어서 내리면 망둥어가 아무 데서나 막 올라왔었어요. 지금은 비싼 생선이 된 데다가 많이 올라오지도 않지만, 그때는 망둥어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대나무 낚싯대도 다 없어지고 전부 고급화가 돼서 좋아졌지만요.

지금은 붓들도 전부 기계로 찍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사진 4〉대나무 낚싯하는 모습 (출처: 구술자 기증)

납을 사다 직접 봉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집에 봉돌 틀이 있었어요. 국자같이 생긴 그릇에 납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봉돌 틀 끄트머리가 뽀족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봉돌을 찍고 나서 그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줘야 하는데 그러다 손을 데기도 했어요. 뉘싯바늘도 예전에는 큰 통에 벌크⁴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봉돌까지 달아서 나오는 건 없었어요. 지금은 물건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납을 녹여서 봉돌을 만들고 거기에 뉘싯줄과 바늘을 일일이 묶어서 세트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당시 가격으로 백오십 원, 이백 원 정도였어요. 그때는 부두에 뉘싯배도 별로 없었지만 가게도 우리 가게 하나였으니까 거기서만 유일하게 팔았죠. 저도 어깨너머로 엄마가 만드는 걸 보고 만들고는 했어요.

그러다 내가 스무 살 남짓할 때부터 여기 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초창기에는 여기 뉘싯배들도 별로 없었는데 어선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뉘싯가게들도 늘어갔어요. 내 기억에 1980년대 초 쯤에 여기 배들이 최고 많았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때가 전성기였죠. 그때는 부둣가에 배가 칠십 척 이상은 댔던 것 같아요. 뉘싯가게도 많아서 한두 시간 사이에 천삼백 명, 천오백 명 이렇게 나갔으니까요. 우리도 그때 배를 운영했었어요. 아버지가 장사하시다 어딘가에

4 벌크(bulk): 선박에 다발짓지 않고 흩어진 채로 막 쌓은 화물(국립국어원)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대신 낡은 배를 줬거든요. 그래서 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선장 월급, 아줌마 월급 등은 고정으로 줘야하니까 나중에는 적자가 나서 가지고 있던 배들을 하나둘씩 팔고 정리했지만요. 그때는 이 앞으로 예인선도 많았어요. 아버지도 예인선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인선을 끌배라고 하거든요. 멍텅구리배라고 동력없는 철선에 통나무 같은 짐을 실으면 그걸 대신 끌어주는 게 예인선이죠. 그때는 좋은 배들도 부두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여기 들어오는 배도 별로 없게 됐어요.

동네잔치처럼 하던 대굿

예전에는 종교를 막론하고 뱃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사를 지냈어요. 특이하게 고집으로 안 지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지만, 구십프로 이상은 고사를 지냈어요. 예전에 우리가 배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땐 무인들을 불러서 했어요. 동네에서 그땐⁵ 큰 굿도 많이 했고 작은 고사들도 집집마다 많이 했어요. 대굿이라고 해서 몇 박 며칠씩 무인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쟁과리도 치고, 칼날 위에서 작두 타는 그런 것도 했어요. 배 위에서도 하고 마을에서도 하고 집 안에서도 하고 그

5 1970년대

랬어요. 무당이 형형색색의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완전히 동네잔치였어요. 한 집에서 하면 동네 사람들도 다들 모여오고 그랬죠. 집 안에는 우상 같은 것, 신들이 그려진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대감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벽화들을 사방에 다 붙였어요. 대곳은 규모가 크니까 매년 하기는 힘들고 이삼 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당시 인천 쪽에는 수봉공원 쪽이 무당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리 가면 무당들이 사는 집엔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동네마다 유명하다는 무당들이 있어서 입소문으로 어디가 유명하다, 어디가 잘 맞힌다 그럼 얼마에 합의를 보고 날짜를 잡아서 하고 그랬죠. 우리 엄마는 단골 만신이라고 했었어요. 그전에는 무당을 만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보면 단골 만신, 다리 건너 만신, 옥화네 만신 이렇게 이름이 다 있었어요. 다리 건너 만신은 지금 고가도로 철거한 곳 있죠? 옛날엔 거기가 바다였으니까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 건너에 산다고 해서 다리 건너 만신이라고 불렀죠.

어렸을 적엔 어느 때만 되면 엄마가 수시로 찾아가셨거든요. 자식들 사주도 놓고 아버지 건강도 봐달라 하고, 올해 운세는 어떤가 봐달라고 하고 그런 걸 해마다 여러 번 갔었던 거 같아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지금도 연세 있는 분들은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고 그런 걸 많이 안 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고사를 지내는 배들이 있어요.

색색가지 깃발을 배에 꽂고 돼지머리랑 과일, 북어, 떡 같은 거로 한 상 차린 다음에 무당이 고사를 지냈어요. 처녀 출조라고 배를 새로 건축해서 신조선이 왔을 때나 다른 데서 배를 사 와서 바깥 적에 바다의 용왕님께 인사를 하는 거죠. 돼지머리 코나 입에 돈을 말아서 꽂아놓고 돛자리를 펴서 사람들이 엎드려서 다 절을 해요. 용왕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이 돈 봉투를 가져와서 돼지머리가 있는 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고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나물이니, 떡이니 술이니 오는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마을 잔치처럼 했어요. 배가 너무 손님도 없고 고기도 못 잡으면 사람들이 저 배가 고사도 안 지내더니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뒷말하는 거죠. 이런 건 어느 부두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에도 처녀 출조 나갈 때는 나가기 전날이라도 꼭 고사를 지내요. 소주 같은 걸 뱃머리나 여기저기 뿌리는 건 평상시에 많이 하죠. 어떤 주기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잘 안 풀린다거나 배가 새로 들어왔을 때는 항상 하는 거죠.

옛날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집에 동자가 있다. 그러면 동자 옷을 해서 입혀야 하고 그랬어요. 이게 조상들에 관한 거거든요. 동자가 많이 있다 그럼 항아리에 밭도 갖다 놔두고 한복집에 가서 사내아이 동자는 사내아이 한복을, 여자아이 동자는 여자 한복을 지어서 예

쁘게 개서 항아리 속이나 집 어딘가에 넣어서 보관했어요. 그리고 굿할 때는 항상 소지종이라고 해서 거기에 불을 붙이면 훨훨 날아가거든요. 마치 영혼을 날려 보내는 듯한 느낌으로 그걸 태웠어요. 지금도 제사를 지낼 때 소지 종이에 조상들의 이름을 한문으로 다 쓰고 지낸 다음에 향으로 태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무궁무진했던 어릴적 놀이

내가 어렸을 적엔 애들은 학교 갔다오면 놀기 바빴죠. 고무줄놀이, 팔방, 강강수월래, 공기놀이, 뽑기 같은 걸 하고 놀았어요. 팔방은 하려면 돌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요. 돌로 바닥에 그리면 그려지는 돌이 있는데 우린 그걸 돌부라고 불렀어요. 학교가 끝나면 그런 돌들을 주우러 다니면서 모아놓는 거예요. 학교 분필도 남은 것을 주워다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런 건 금방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피를 낸 거죠. 당시는 이런 아스팔트가 아니라 전부 흙바닥이었잖아요. 비가 와도 안 맞고 놀 수 있는 그런 데 자리를 딱 잡고 못으로 바닥을 완전히 깊게 파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돌부로 뺄어지지 않게 각을 맞춰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학교 갔다 와서 놀기 전에 그 위를 빗자루로 싹싹 쓸면 그려졌던 라인이 짙어 나왔어요. 땅을 파서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매번 그리지 않아도 쉽게 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피를 낸 거예요. 팔방은 납작한 돌이나 나무를 발로 밀어가면서 선을 밟지 않고 칸칸이 지나서 끝까지 오면 이기는 놀이였어요.

밭줄로 단체 줄넘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면 일본 말이에요. 처음에 준비할 때 “쇼오 네썬썬”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걸 부르면서 박자를 맞춰서 줄 사이로 한 명씩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서, 짚어서 만세를 불러라. 불러서, 불러서 잘 가거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뒤로 돌고 바닥을 짚었다 한 명씩 나가는 그런 놀이죠. 또, 소꿉놀이할 적에는 빨간 벽돌을 곱게 갈아서 고춧가루라고 해서 풀을 뜯어다 그걸 버무려서 김치를 만들기도 하고 토끼풀로 화관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돌맹이가 많으면 돌부도 돌부지만 무조건 공깃돌을 찾는 거예요. 예쁘고 공기하기 좋은 크기의 돌을 찾아서 깨끗이 씻어서 모아두고 그걸로 공기하는 거죠.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기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또 왕공기라고 해서 주운 돌들을 쌓아 올려서 돌산처럼 만들고서 맨 위에 제일 큰 돌맹이를 올려놓거든요. 그럼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손등에 공깃돌을 올려놓고 공기를 해서 맨 위에 올려 둔 돌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쳐서 공깃돌에 맞아서 나오는 돌들은 내끼고 맨 위 공깃돌을 건드려서 무너지게 되면 지는 그런 놀이를 왕공기라고 불렀어요. 또 긴

나무막대기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노는 자치기, 강강수월래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놀이감이 엄청 많았어요. 무궁무진했죠.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랜데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이라고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 발자국. 누가 누가 새벽 길 떠나갔다. 외로운 산길에 구두 발자국’⁶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고무줄놀이할 때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놀다 저녁이 되면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불렀어요. 그럼 집으로 가는 거죠. 당시는 거의 장작 때던 때니까 집집마다 아궁이 때문에 장판이 새카맣게 탔었어요. 그땐 지금 같은 밥솥도 아니니까 밥을 하면 엄마가 따뜻하게 아랫목에 물어놔다가 남편도 주고 자식들도 먹였어요. 집도 전부 나무 찬장이었는데 조금 살만하면 스테인리스 세숫대야가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세수하고 그랬죠. 그때는 고무도 어찌나 튼튼한지 고무대야는 삼십 년이 지나도 닳지도 않고 고무신도 여간해서는 찢어지지 않으니까 일부러 그걸 찢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새 신발을 사달라고 하고 싶어도 찢어져야 하죠. 주로 사내애들은 검정 고무신, 여자애들은 하얀 고무신, 그리고 좀 사는 애들은 색동고무신을 신졌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색동고무신을 많이 신졌어요. 우리 엄마는 자식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6 구두 발자국: 김영일 작사, 나운영 작곡의 동요. 1953년 국정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처음 발표됨(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힘든 일은 안 하고 자랐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장사하셨으니까 그런대로 부유하게 자란 편이었어요. 유치원도 다녔고 엄마가 무용 과외도 시켜주시고 그랬죠. 당시 친구들이 몽땅 연필을 쓸 때 나는 고급 필통도 쓰고 친구들한테 연필도 나눠주는 정도였으니까요.

김장철 풍경과 엄마

우리 엄마는 통도 크시고 동네 사람한테도 많이 베푸시는 성격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철이 되면 동네 군인들부터 마을 사람들까지 전부 나눠 먹었어요. 예전에는 부두 주변에 군인들이 상주했거든요. 만석부두초소라고 지금의 해양경찰서 자리에 초소가 있었어요. 겨울에 김장하면 거기 군인들까지 다 먹었어요. 오랜 세월을 김장하시면 초소에 있던 군인들에게도 큰 들통에 나눠 담아주셨죠. 우리 동네는 김장할 때 주로 생새우나 굴을 많이 넣었는데 특히 생새우는 빠지지 않는 재료였어요.

엄마가 동네에서 장사하시다 보니까 동네에 엄마 친구분들도 계시고 또 오며 가며 동네 사람들도 많다 보니 김장을 하면 규모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커다란 뒷마루에 비닐을 씌워 놓고 배추 몇백 포기씩은 했는데 어떤 때는 천 포기가량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날은 동네



〈사진 5〉 초소가 있던 해양경찰서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잔치인 거죠. 큰 술으로 고기도 삶고 일하는 사람들도 중간 중간에 먹어가면서 하고 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요. 옛날에 천양포도주라고 유행하던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나눠마시고 그랬어요.

지나가던 사람들, 오가는 노동자 중에 엄마가 갓 담은 김치로 싸준 짬을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배추가 전부 속이 없었어요. 엄마가 배춧속을 몽땅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짬을 싸서 먹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같이 일한 사람들은 들통으로 하나씩 다 퍼주고 퍼주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통

도 크시고 베푸는 걸 좋아하셨어요. 나 어렸을 적에도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요. 내 기억에는 엄마가 제소자들 봉사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선행하시던 걸 보고 나도 모르게 배웠나 봐요. 나도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듣는 도서 녹음 봉사도 이십 년을 넘게 했고 동네에서 통장 생활도 하고 그랬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 부두의 변화와 기억

똥마당과 선상 파시

어렸을 적에는 부두 앞으로 바닷물에 떠밀려서 내려온 통나무들이 많았고 또 똥마당⁷ 쪽으로도 목재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 연세 있으신 분들 집에는 아궁이에 나무로 불 때는 곳이 많았거든요. 통나무가 묶여서 물에 동동 떠 있으면 어른들이 낚으로 나무껍질을 뜯어서 땀감으로 쓰느라고 집집마다 빼곡히 쌓아뒀어요. 우리도 장작은 땀지만, 엄마 아버지가 장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할 틈이 없이 바쁘셔서 사다가 썼어요. 지금은 북성포구가 됐지만, 옛날 사람들은 똥마당

7 북성포구



〈사진 6〉 북성포구 선상 파시 (출처: 구술자 기증)

이라고 불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생선 좌판이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만석부두라고 대답해서 여기로 새우젓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만석부두라고 하면 여기로 오니까. 그럼 새로 생긴 이름이 북성포구니까 그리로 가라고 보내는 거죠. 북성포구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는 다 똥마당이라고 불렀어요. 똥마당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가을이면 새우젓을 실은 배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새우젓을 쌓아놓고 팔았었거든요. 서울에서도 오고 다른 데서도 많이 왔어요. 소래포구도 새우젓을 사러 많이 갔었지만, 똥마당 쪽으로도 많이 왔어요. 그리로 배가 들어오면 배마다 좌판이 벌여졌어요. 그물을 짝 걸어서 거기다 쏟아놓으면 망둥어, 장대, 광어, 우럭, 꼴뚜기, 붕장어, 새우가 한데 섞여 있어요. 그럼 배 위에서 정리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럭은 우럭대로, 놀래미는 놀래미대로, 새우젓은 새우젓끼리 분리해서 바닷물에 씻은 좌판 위에 짝 진열해놔요.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건지면 그냥 우럭은 우럭대로 올라오나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물에 다 섞여서 걸려 올라와요. 그걸 다 분리해서 좌판에 벌여놓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골라서 사는 거죠.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똥마당에서 발가벗고 수영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화수부두, 만석부두처럼 바닷가를 끼고 살던 학생들은 겁 없이 바다에서 수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위험하긴 했었네요. 그러다 보니 당시 간혹 빠져 죽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많이 낚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했잖아요. 옛날에는 이 부두에 일부러 자살하러 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때는 안전장치라는 게 따로 없고 바로 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있었거든요. 이상하게 날이 꺾으면 그런 일의 의외로 많았어요.

빨간 흙길이었던 만석부두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건물 뒤편으로 오륙 십 년도 더 된 집들이 있었어요. 민속촌처럼 한 평짜리, 두 평짜리 그런 집들이 다닥다닥하니 얼기설기 지어져 있었어요. 거기는 집집마다 골목도 아주 좁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들을 다 철거해서 없죠. 이 동네가 개발하기 시작한 지 3년 조금 더 됐나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 일대를 철거하고 개발해서 많이 변했어요. 새로 공원이 생긴 그 뒤편으로 한국관유리 담벼락을 끼고 안으로는 조그맣게 창고가 하나 있었고 골목도 사람 하나 정도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어요. 이젠⁸ 빨간 벽돌집

8 <사진 8>의 좌측 사진



〈사진 7〉 철거 중인 집 (출처: 구술자 기증)



〈사진 8〉 철거 전 동네 전경 (출처: 구술자 기증)

에서 부두로 나오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골목에서 숨바꼭질도 많이 했었어요. 여긴 숨을 데가 많잖아요. 사진들은 헐리기 전에 내가 직접 다니면서 찍어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이 동네는 부모님이 공장에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다들 생활이 어려워서 목욕도 자주 못 하니깐 학교에서 위생 검사 같은 것도 했었어요. 동네가 어렵다 보니까 손톱 검사, 때 검사 그런 걸 했어요. 굵은 애들도 많아서 초등학교 다닐 땐 옥수수빵, 강냉이 빵 같은 것도 학교에서 나눠주고 그랬어요. 반마다 대나무 바구니에 담겨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면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게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우리 집이 가게 안에 있었거든요. 가게에 방이 딸려있었으니까 학교 갔다오면 항상 엄마가 가게에 계신 게 좋았어요. 나는 이 도롯가에서 쪽 살아온 거죠. 그때는 이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흙길이었는데 그것도 다 빨간 흙으로 된 땅이었어요. 그땐 땅이 참 나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뒤에 태우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어느 날은 오토바이 뒤에 태워서 눈, 비가 오는 날에 학교까지 데려다주곤 했었어요. 그때는 이런 길을 볼 수가 없었죠.

엄마가 명절이면 친정에 간다고 영종도에 가셨어요. 그럼 한복에 버선까지 다 신고 가시는 데 지금 가게 자리에서 부두까지 갈려면 땅이 엄청 질었거든요. 영종도에 가려면 배를 타러 가야 했고 영종 배

터에서 할머니네 집까지도 땅이 엄청 질었고요. 그러니까 까만 비닐을 양쪽 종아리까지 올려서 끈으로 묶고 한복을 여미면 아빠가 등에다 업어서 배 타는 데까지 데려다주곤 했었어요. 그땐 배로 삼십 분 정도 가야 영종도에 도착했어요. 큰 유람선처럼 큰 배였는데 이것저것 다 싣고 다녔죠. 그땐 배가 느렸어요.

그 시절엔 겨울에 유독 추웠어요. 그러다 눈이 오면 날밤을 꼬박 새워서 눈사람을 만들어서 집 앞에 세워뒀었어요. 지금도 눈사람 만드는 걸 좋아해서 겨울이면 가끔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때는 집 앞에서 자주 만들었죠. [사진 9의 우측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뒤에



〈사진 9〉 집 앞 눈사람 (출처: 구술자 기증)

성북상회라고 보이죠? 이 사진이 바로 여기 가게 앞길이에요. 사진에 있는 게 나고요.

해방촌과 굴막

여기 서해빌라 뒤쪽은 예전에 아카사키라고 부르던 해방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완전히 판잣집이었죠. 해방촌 쪽으로 들어가면 타원



〈사진 10〉 해방촌 (출처: 구술자 기증)

형으로 길게 생긴 굴이 있었어요. 그 굴 안으로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굴 까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죠. 그때는 작약도에도 굴이 많았고 무의도라든가 굴을 채취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해마다 굴이 붙는 데가 다르거든요. 해마다 이동을 많이 해요. 여기 부두 앞에도 굴막⁹이 있었지만, 해방촌 굴막도 컸어요. 해방촌 굴막은 여기랑은 다르게 땅굴처럼 되어있어서 캄캄했어요. 조그만 불빛만 하나씩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 모여서 굴을 깎았어요. 그것도 없어진 지 이십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동창 아이 중에 거기 사는 애가 있어서 그쪽에도 많이 깎았거든요.

굴은 보통 겨울에 시작해서 겨울 지나면 바로 끝이 나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요만한 숯불 같은 걸 놓고서 그 위로 양은 주전자에 물을 담아 끓이거든요. 추워서 손이 어니까 그렇게 끓인 물을 그릇에 따라서 장갑 낀 손을 그걸로 녹여가면서 굴을 계속 깎았어요.

해방촌에도 굴막마다 그렇게 석유 난로랑 숯불을 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굴막 꺾테기였어요. 굴막 꺾테기는 바다에 버려도 오염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바다에 바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전부 동네에 모여서 까고 거기에 버리니까 그거 처리

9 굴막: 굴을 까는 막사



〈사진 11〉 철거 직전 굴막 전경 (출처: 구술자 기증)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굴 깎테기를 전부 자루에 담아다가 바다에 나갈 때 그걸 가져다 버리는 게 일이었죠. 보통 굴 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십구 점 구 퍼센트(99.9%)가 여자예요. 그걸 생계로 삼아 시작해서 아이들 학교도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그랬죠.

[사진 11을 가리키며] 이게 굴막이에요. 집집마다 한 칸씩이고 여기 그물도 걸려있는 게 보이죠? 내가 어렸을 적에는 여기 앞 조선소를 통해서 굴막에 드나들 수 있었거든요. 조선서 쪽으로 들어가서 두산 인프라 벽 쪽으로 다닥다닥 붙여서 지어놓고 사용했거든요. 이 사진은

혹시 몰라서 철거 전에 내가 직접 찍어 놓은 거예요. 굴막¹⁰있던 곳은 전부 다 철거했지만, 판잣집 하나는 남아있을 거예요. 젊었을 적부터 갈 데가 없으시니까 거기에 판잣집 하나를 지어서 사시던 부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할머니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그 노부부가 사시던 집이 아직 방치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굴막들은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사용 안 한 지 꽤 되니까 다 철거를 한 상황이고 뚝마당 쪽에 새로 굴막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가보시면 보일 거예요.



<사진 12> 굴막 앞 조선소 (출처: 구술자 기증)

10 2020년 철거

그때는 굴 말고도 갯지렁이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어요. 지금은 갯지렁이를 북한이나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지만, 예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그걸 직접 캐러 다녔어요. 갯벌을 뒤집어서 한 마리씩 건져서 그걸 젖은 보자기에 싸서 깡통에 담아 와서 팔고 그랬거든요. 젖은 보자기에 넣는 거는 체온을 유지해서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오면 낚시 가게 저울에 달아서 시세대로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이제는 한두 분 남았나. 지금은 다 수입해서 오니까 하시는 분이 없지만, 당시는 무조건 국산 지렁이였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할머니 한 분이 잡아 오셨었는데 지금은 없죠. 지금은 국산은 보기 힘들고 구십프로 이상이 다 수입이거든요.

옛날에는 잡아 온 지렁이를 잡아 오면 흙 속에 보관했어요. 동네에 빨간 흙들이 많았거든요. 아빠가 그런 흙을 가져다 삽으로 으깬 다음, 체에 곱게 내렸어요. 곱게 내린 흙에 지렁이를 섞은 후 그걸 소분해서 차곡차곡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서 질석에 보관했어요. 돌을 튀긴 걸 질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렁이를 보관했었죠. 지금은 라면박스를 곱게 다져서 잔물에 습기가 촉촉하게 있도록 만든 이런 습지들을 기계로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을 해요. 애들이 상처가 나지 않게 보관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그런 보관법 같은 것들도 다 바뀌었어요.

80 한국관유리공장에 대한 기억

멀리서도 가지러 왔던 모래

그때는 한국유리 공장¹¹이 크게 있을 때여서 한국유리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때는 외국에서 오는 배에 모래를 잔뜩 싣고 오면 사람들이 지게로 그걸 실어서 날랐어요. 두껍게 끈 새끼줄이 달린 나무지게였어요. 지금도 그때 흔적이 남아있는 돌담이 있어요. 돌담 밑으로 지게에 지고서 모래를 나르다 보면 지게 사이로 모래가 빠져서 다리 밑으로 모래가 성처럼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럼 애들은 거기에서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그 모래를 가지고 놀았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낫그릇을 많이 썼잖아요. 그때는 제사 때마다 낫그릇을 닦는 게 일이었죠. 지푸라기는 아시죠? 지푸라기를 가지고 온 모래에 비벼서 닦으면 낫그릇이 굉장히 반짝반짝해지거든요. 낫그릇 닦는 데는 모래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다들 그 모래를 가지러 왔었어요. 여기저기서 자루니 대야니 그런 걸 가지고 그 고운 모래를 가져가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명절 전에는 더 많았어요. 차례상 지낸 그릇을 닦아야 했으니까요.

11 1957년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를 받아 설립된 공장

유리 닦은 물로 목욕하던 광경

그때를 생각해보면 재미난 일들이 참 많았는데 멀리서 보면 인천 어디서나 판유리 공장 꼭대기의 커다란 물탱크¹²가 보였어요. 은색으로 엄청나게 큰 곳에 한국유리라고 적혀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판유리공장이니까 유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로 30cm 자를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한테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항상 한국판유리라고 적힌 유리 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나는 유리 세척 과정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어릴 적 부두에 있는 담벼락에 보면 마름모꼴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해양경찰서 뒤쪽 담벼락을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구멍 사이로 유리를 닦은 물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을 흘리나오면 그 물이 깨끗하다고 부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목욕하는 모습도 어렸을 적에는 자주 봤어요. 당시는 뜨거운 물이 귀했잖아요. 그런 풍경들은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요. 사진¹³ 아래쪽에 마름모꼴로 된 돌 보이죠? 원래는 파이프 위까지 전부 이런 마름모꼴로 되어있었어요. 원래 그런 돌을 지금은 저렇게 평평하게 했지만, 예전에는 마름모꼴로 된 돌 사이에 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물이 나왔죠.

12 판유리공장 꼭대기의 급수탑

13 <사진 13>



〈사진 13〉 해양경찰서 뒤편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그리고 해양경찰서 앞쪽으로 보면 옛날에 쓰던 나무다리가 있던 흔적도 볼 수 있어요. 당시 나무다리 밑으로는 바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썰물 때는 다리 위에서 놀다 물이 들어오면 나왔었죠. 당시 부둣가 관유리에 다니던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통근 버스도 여러 대가 다니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당시는 이 동네가 엄청 활발했어요. 그때는 물이 깨끗해서 민챙이도 많았는데 지금은 민챙이가 아주 귀한 게 돼버렸어요. 민챙이¹⁴는 캐러멜 콘 과자 같이 생긴 아주 작은 건데 등껍질이 있어서 애벌레처럼 기

14 민챙이: 껍데기가 퇴화한 고둥의 일종으로 펄 갯벌 혹은 혼합갯벌에서 서식(출처: 해양환경정보포털)



〈사진 14〉 민챙이 (출처: 인천광역시사(2002))

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맑은 물에만 사는 건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부둣가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는 그걸 잡아다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배가 있을 정도였어요. 일본에서는 그게 귀한 음식이어서 비싸다고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수출은 한다던데 이제는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잡기 어려워졌고요.

㉸ 운명처럼 시작한 낚시가게

IMF 때 시작한 낚시가게

저는 동인천 상가에서 의류 일을 했었어요. 오전 10시 반이면 항상 가게 문을 열었는데 엄마는 새벽 두 시면 문을 열었거든요. 엄마가 새벽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내 일은 그대로 하면서 새벽 시간에는 엄마를 도와주다 출근하고는 했어요. 그러다 IMF 때 하던 일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여기는 다시 호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일하게 됐어요. 내가 낚시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는 낚시도 많이 하러 다녔죠. 여기서는 자월도, 영흥도, 무의도, 덕적도 그런 데로 낚시를 많이 나갔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낚시하러 다녔어요.

9월부터 11월이 낚시가 제일 바쁜 시기예요. 예전에는 주꾸미는 낚시로 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주꾸미 철만 되면 바빠요. 몇 년 전 주꾸미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자연산 주꾸미를 먹자고 시작된 낚신데 지금은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졌어요. 주꾸미 철에는 낚싯대를 아무 데나 넣어도 나오거든요. 애나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가짜 미끼를 넣기만 하면 잡히죠. 남항이나 연안부두는 시간 배로 나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하루 배예요. 가까운 데는 영흥도, 무의도, 팔미도서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자월도, 덕적도, 송봉도까



〈사진 15〉 운영 중인 낙시가게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지도 가는 거죠. 느린 배도 있고 고속정도 있고 그래서 배마다 금액도 다르고 포인트도 달라요. 우리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는 배가 여러 척 있었어요. 큰 배만 해도 예닐곱 척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하고 낙시 물건도 팔고 어선단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낙시는 정신 건강에도 참 좋거든요. 가게를 하다보면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빠진 애들도 많은데 온종일 낙시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게임을 하는 일이 없죠. 낙시에 집중하느라고요. 일상을 벗어난다는 게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참 좋아요. 낙시라는 건 낙

씻바늘에 미끼를 꺼서 바다에 던져 넣는 거잖아요. 고기들이 와서 입
질하면 손끝에서 누가 와서 입질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놀래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까부는데 주둥이는 또 작거든요. 그리고 구
십프로 이상 지렁이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렁이를 미끼로 달아두면
입질하면서 까불다가 낚싯바늘이 옆구리에 끼워지기도 해요. 그러니
까 초릿대 끝에서 까부는 게 느껴지면 ‘아, 놀래미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낚시하다 보면 봉돌이 바닷속 들뎡이를 치기도 하고 또 낚싯대가
그물에 걸릴 때도 있죠. 고기 입질을 기다리면서 바다를 보기도 하
고요. 우럭이나 광어들의 몸짓에 웃다 보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까지 바닷속 풍경으로 확하고 펼쳐져요. 마치 대형 수족관
처럼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또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일
상 속에서 의식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바다에서만
큰 텅 빈 마음이 돼서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힘들었
던 모든 일을 비우고 텅 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낚시
가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를 먹다 보니 무릎
도 고장 나고 병원에 가는 일도 많아져서 예전처럼 자주 가지는 못하
지만 틈이 나면 꼭 한 번씩은 가요.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3년 전만 해도 가게 뒤편이 마치 민속촌처럼 내가 유치원 때 놀던 자리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전 집이라든지 살던 터 같은 걸 보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예순넷인데 일흔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옛날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나를 가르쳤던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언니, 오빠도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당시 가르쳤던 아이들도 보고 싶고 우리 부모님처럼 열심히 사신 분들이 없었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유독 생각이 많이 나서 찾아오셨다고요. 언니, 오빠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철이, 성애, 성자 다 잘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제가 그때 셋째인 성자예요.” 했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시더라고요. 최근 들어 여길 여러 번 오셨는데 가게 문이 닫혀있어서 그냥 돌아가셨다면서 가족들 안부를 묻고 가셨어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추억들을 더듬어서 그 발자취를 찾아오시는 거죠. 요즘 그런 분들이 유독 많아졌어요. 나는 여기서 오래 살았잖

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억을 더듬어 찾아오면 혹시 여기서 얼마나 사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서 살았다고 하면 거기 몇째 딸 누구, 몇째 아들 누구는 아는지 물어봐요. 여긴 대부분이 만석초등학교를 나와서 동네 사람들끼리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럼 또 아는 건 이야기해 드리고 그래요. 나도 이야기하면서 옛날을 회상하니까 재미있는 일이 진짜 많았네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나도 그렇고 여길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이제 진짜 늙는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저기 앞에 벽화 골목을 보면 기차랑 기차길이 벽화에 그려져 있잖아요. 저기도 원래 옛날 모습대로 철로를 놓기로 했는



〈사진 16〉 운영 중인 가게 앞에서 구술자 정성자 씨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데 사업이 저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동네 모습들이 잊혀져 가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80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

군부대로 날랐던 빨감

우리집은 식구가 많이 없었어요. 우리 친정에는 아버지, 엄마하고 나 하나 이렇게 셋이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하자면 사업을 하셨어요. 제주도 말로는 육지라고 하는데 육지로 배가 들어갈 때 거기다 집을 실어 나르거든요. 그걸 관리하는 일을 하셨죠. 그러다 한국 전쟁이 나고 제주도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바람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도 중공군들이 다 태웠으니까요.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니 집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땅은 남아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 움막 같은 집을 지으셨어요. 문도 가마니 문이라고 해서 가마니¹를 입구에 하나 걸고 그걸 걷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문을 단 집에서 살았어요. 전쟁 중이라 불도 못 켜서 해라도 떨어지려고 하면 일찌감치 저녁을 해 먹고 방에 들어가서 꼼짝 안 하고 있어야 했어요. 우리는 그때 어렸으니까 그런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제주도 다른 동네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산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지냈어요.

1 가마니: 새끼를 날[經]로 하고 짚을 씨[織]로 하여 돛자리 치듯이 쳐서 울을 길게 만들어 곡식 등을 담는 용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 전쟁 때 빨갱이라고 하던 사람은 전부 산 위에 있었고 아군은 전부 산 밑에 있었어요. 당시 군부대는 전부 나무 땔감을 땔었으니까 주민들이 그걸 해다 줘야 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전쟁이 나면 산 밑에서도 안 받아주고 산 위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가운데서 다치거나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요만하게 아주 작은 아이들도 구루마(수레)를 끌어야 했어요. 말하자면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아이가 없는 배짱을 부려서라도 끌고 가야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나무를 실은 수레가 하루에도 열 몇 대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군부대에 나무를 해다 주고 나면 정작 주민들은 땔 나무가 없죠. 그때 아버지가 그걸 관리하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수레는 우리 집에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가족들이 올 시간이면 그걸 몰래 빼러 왔었어요. 가족들이 오면 불을 때야 하잖아요. 우리 엄마랑 그걸 지키는 일을 하셨어요. 나도 엄마를 따라 종종 했었고요. 못 가져가도록 지킨다기보다 너무 많이 빼가면 티가 나니까 그런 걸 지키려고 나간 거죠. 나무를 하나나 두 개 빼가는 사람들은 봐줘야지, 안 봐주면 어떡해요. 살기가 급해서 그런 거니 그걸 뺏지는 못했어요. 간혹 많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표가 나니까 조금만 덜어라, 조금만 빼서 가져가라 그랬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일을 맡아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으면 우리 아버지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일을 하시다 다치셨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한 일학년이나 됐나. 다른 어른들은 나무를 다 하고 내려가는데 어떤 어린 애 하나가 나무를 다 못 한 거예요.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자니까 그걸 대신해서 급히 마무리하다 다치셨어요. 당시 낮처럼 생겼는데 두껍고 주먹만 하게 생긴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세워둔 나무를 가르시다 실수로 다리를 찍으신 거죠. 피가 어찌나 많이 나는지 급하게 다리를 싸매고 걷지도 못하시니까 리어카에 싣고 내려가는데 수레 위로 피가 한가득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싸매고 있던 천을 풀자마자 피가 천장으로 솟을 정도였어요. 그때 그렇게 다치시고 나서서는 치료를 했는데도 다리를 계속 저셨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큰아버지에 대한 기억

우리 큰 아버지네는 집이 제주도 봉개거든요. 지금은 그 지역 명칭이 봉개² 하나로 다 합쳐졌던데 그때 당시는 거길 봉아름이라고 불렀어요. 큰아버지는 육이오 당시 산에서 일을 하시다가 군인들한테 몰려서 크게 다치셨어요. 밑으로는 아군이 쫓아와서 산 위로 올라가면

2 제주도 봉개동

위에서는 또 빨갱이가 쫓아 내려와서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 하다 대 나무 칼로 열 군데도 넘게 찢리는 바람에 죽다시피 하셨어요. 그때 큰아버지는 작은할아버지랑 같이 나무를 다니셨는데 한 양반이 그렇게 창을 맞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숨어서 보고만 있으셨던 거죠. 군인들이 가고 나서야 나와서 보니 큰아버지가 다 죽게 생긴 거죠. 머리를 여러 번 찢려서 피는 말도 못 하게 쏟아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인니까 짜맴만한 것도 없잖아요. 천이라고는 입고 있던 옷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속옷을 하나 벗겨서 그걸로 머리를 대충 싸준 거예요. 당신 혼자 떠메고 가시지도 못하니까 군인들이 계속 큰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덮어두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표시를 하셨대요.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 어디 숨어있다 다시 와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빨갱이들이 올라갔거나 조용해지면 다시 몰래 와서 어떤가 보고. 그러다 큰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조금 데리고 걸어가다가 또 어디서 소리가 나면 다시 눕혀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 덮어놓고 당신도 숨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다 아군들이 발견하고 내려오라고 해서 겨우 사신 거죠.

큰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엄마가 병문안하러 가셨어요. 그때 큰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보더니 정육점에 가서 간을 좀 사다 달라고 하셨대요. 다치고 피를 많이 흘리셨으니까. 그때는 민간요법이 많았잖아요. 그때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엄

마한테 큰아버지를 살리고 싶으면 하루에 간을 아침, 점심, 저녁 딱 세 번만 주고 죽이고 싶거든 많이 주라고 하셨다는데 큰아버지가 계속 더 달라고 성화이신 바람에 결국 엄마가 조금 더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그걸 드시고 크게 탈이 나신 거죠. 그때는 어쩐지 그렇게 탈이 나면 어른들이 참빗을 구해와서는 그걸 갈아서 기름이랑 먹이라고 하셨어요. 참빗도 아주 다 닳아져서 묵은 거로 구한 다음 그걸 태워서 갈 거거든요. 그럼 그 가루를 참기름에 개서 먹이는 거죠. 우리 큰 아버지도 그걸 몇 번 떠먹이니까 살아나시더라고요.

㉸ 인천 정착기

남편을 따라서 오게 된 인천

내가 여기서 산 지도 벌써 육십 년이 넘었어요. 아이들 나이로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이 동네서 아이들을 낳고 살았는데 우리 큰아들³이 벌써 육십 남짓 됐으니까요. 나는 원래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이고 아이 아빠는 원래 경북 예천 사람인데 제주도로 군대를 오게 되면서 만나게 됐어요. 나는 오로지 부모님 말씀만 듣고 집 밖으

3 3남 3여 중 넷째로 위로 누나가 셋 있음



〈사진 17〉만석부두 전경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로는 잘 나가지도 않던 사람이었으니까 중매로 만난 거죠. 동네에 가끔 군부대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서 연애하겠다고 나가는 애들도 더러 있었는데 나는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나가 다녀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중매가 들어오는 바람에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딸 셋을 낳고 경상도 시댁이랑 서울에도 잠깐 있다가 남편이 회사를 인천으로 오게 돼서 여기로 따라서 오게 됐어요. 남편이 한염부두⁴에서 물건들을 떠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운반하는 중기차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꽤 오래 했어요. 그 일을 하다 나이를 먹어서 퇴직했으니까요.

4 1948년 설립된 인천 최초의 하역, 해운회사가 운영하던 모래부두. 현 한국기초소재(주)사일로 자리(출처: 물길 따라 동구길)

한염부두는 만석부두 옆에 판유리하고 요렇게 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앞을 마주보는 곳에 있었거든요. 작은 골목이라도 거기 는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니까 큰 차가 들락거렸어요. 한염부두로 배 들도 들어왔는데 아주 큰 배는 안되지만, 물건을 내리고 실는 제법 규모 있는 배들이 그리로 들어왔어요. 대리석이나 수입해오는 쌀, 또 돌 이나 설탕 같은 것들도 다 한염부두에서 작업했으니까 본선이 덴마⁵ 보다는 컸어요. 지금은 배도 부두도 다 없어졌지만요.

뜻하지 않은 밤손님

인천에 와서 처음에는 화수동에 살았어요. 거기 살 때 우리 집에 밤손님이 들었거든요. 우리 큰아들을 낳은 지 백 일도 안됐을 때였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그때는 그 길에 대문 없는 집도 많았는데 우리 집은 대문도 있는 집이었거든요. 거기다 비도 오는 날이었는데 도둑이 대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날 작은 방에서 딸 셋하고 아기가 지 여섯이 자고 있었어요. 아이 아빠 왼편으로 큰아들을 재우고 오른편으로는 딸이 자고 있었어요. 애들끼리 자다 잘못하면 애가 놀릴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재웠어요. 그렇게 가만히 자고 있었는데 뿔가 뿌스럭뿌스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 불 꺼진

5 덴마: '전마선'의 방언(출처: 국립국어원)

방 안에서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애 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전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 위로 넘어가서 시계 같은 건 먼저 주머니에 집어넣고 전축도 마저 떼어가려고 두두두두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때는 말도 크게 못 하고 방도 어두우니까 그 소리가 정확히 뭐를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먼저 깨어있는 상태였는데 잘못하면 애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놈이 전축을 들고 나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딱 걸어서 잡았는데 그때는 정말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도둑이야” 하고 먼저 나왔더니 마침 동네 형사가 권 씨네 집 도둑이 들었다니까 쫓아왔어요. 동네 형사도 순찰을 돌고와서 자려고 팬티만 입고 집에 누워있다가 급하게 쫓아온 거죠. 그때 그 형사가 하는 말이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야’ 하지말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쫓아 나온다고요. 그런데 무섭고 놀라니까 불이 어딴어요. 그냥 본 대로 도둑이야 소리친 거죠. 나중에 도둑을 잡아다가 도대체 대문은 어떻게 열었냐니까 꼬챙이 같은 거로 달싹달싹 움직이니까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이 그렇게 도둑이 잘 들었어요.

그때 살았던 집은 주인네가 조그맣게 가게를 하고 그 뒤로 방 하나 부엌 하나가 꾸며져 있었고 조그맣게 마루랑 마당이 있던 그런 독집

이었어요. 그 집에 쪼그만 길 쪽으로 난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도둑이 잡혀가고 나서 같은 치들이 찾아와서 잡힌 도둑을 안 풀어주면 너희 집에 불을 지를 거라고 식구들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그 치들을 법으로 처리해서 해결해달라고 다짐받고 나서도 무섭다고 이사를 온 게 지금 이 동네였어요.

☺ 1960, 70년대 만석동

집집이 붙어살던 시절

여긴 요만치만 한 땅만 있어도 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지금도 보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일대로 삼미사도 있었고 대성목재, 한염부두 같은 일자리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 동네에 많이들 모여 살았어요. 우리 집 앞에 조그맣게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만 해도 삼십 가구가 넘게 있었어요. 조그만 텃이라도 있음 밑에 집이 있더라도 그 위로 집을 새로 또 짓는 거예요. 조금의 틈도 없이 짓고 살았어요. 지금은 집도 다 철거하고 기존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냥 이사를 나가기도 하고. 지금 여기 사람 중에 원주민은 몇 안 돼요.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있던

집들을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길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동네 모습이 하나도 없죠. 옛날에는 여기 앞 골목에 보면 축대 쌓인 곳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우물 자리예요. 거기 우물이 있어서 우리도 거기서 물을 떠다 먹었어요. 1970년 넘어서까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메꾸고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기 동네 사람이 한 명 빠져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집이 있으면 요만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들이 마주 보고 다닥다닥 쪽 붙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밥그릇이 몇 개,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알았어요. 우리 집 양반이 동네



〈사진 18〉괘이부리말 소공원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통장을 십팔 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는 애들이 몇 명인지 어른이 몇 명인지 다 알았죠. 옛날에는 지금 같은 길이 아니라 좁았고 실 도랑 같은 게 한쪽 옆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그 도랑에 나무 같은 걸 걸쳐놓고 앉아서 굴도 까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길의 절반 정도 겨우 됐었죠. 굴은 팔 월부터 한겨울까지 따고 3월이 되면 끝났어요. 한 포대 까는 사람도 있고 두 포대 까는 사람도 있고 밤새워 가면서 까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자기가 까는 대로 돈을 버는 거니까. 부둣가에서 직접 따서 하기도 했는데 주로 따온 걸 사서 줘요. 여기 공동작업장이 있어서 거기서도 줘지만, 길에서도 까고 그랬죠. 그때 길에다 빨래도 막 널어놓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빨래를 다 걷어가지고 와서 빨래를 돌려주고 오고 그랬어요.

김장할 때도 주변 몇 집이 모여서 어느 한 집이 한다고 하면 그 집 가서 도와주고 김치도 얻어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동네가 좁으니까 백 포기는 그냥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해야 했어요. 큰 다라(고무대야)에 해서 큰 그릇에 떠줘야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노인네들도 있으면 떠다 드리고, 밥도 특별하게 팔밥을 하든지 콩밥을 하든지 찹쌀을 넣어서 가마솥에다 해서 모자라면 또 해야 했고요. 옛날에는 김치도 두 종류를 했어요. 집에 오시는 손님이 드실 거랑 우리 식구들이 먹을 김치. 손님용은 속이 짝 찬 거였고 집에서 막 먹는 거는 속아 안 차도 되니까 허불허불한 거였죠. 항아리에 비닐을 넣고 그 안에



〈사진 19〉 갯이부리말 공동작업장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김치를 포기로 넣어서 보관해도 쉬지 않고 한겨울은 먹은 거 같아요. 옛날에는 묻지도 않고 그냥 실내에 뒀는데도 그랬어요.

원목 나무껍질을 때던 시절

우리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땐 사람들이 석탄을 주워다 때더라고
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새카맣어요. 배 들어오는 바닷가에서 주워오
기도 하고 흙쳐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석탄은 안 써봤고
판유리공장 앞에서 원목에 붙어있는 나무 껍데기를 주워다가 많이 땀

어요. 빠루⁶라고 불렀는데 낮 비슷하게 생긴 거로 나무 위를 짚어서 벗기는 거예요. 그걸 싹 벗겨서 집에서 땀감으로도 쓰고 그걸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회사는 우리가 벗겨주면 더 좋은 거죠. 원나무만 가지고 하니까. 많이 벗길 때는 몇십 단을 벗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운반하기 좋게 요만하게 묶거든요. 그게 딱 한 단이죠. 길이가 길기는 하죠. 그걸 바닷가에서부터 운반해서 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연탄이 나와서 그때부터 연탄을 때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곤로⁷라고 있었잖아요. 장작을 때서 거기다 소소한 건 다 해 먹었고 가마솥도 걸어서 밥을 해 먹고 그랬어요. 양은 술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걸어놓고 불을 때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당시는 부뚜막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또 양철통을 가지고 집 밖에서 끓여 먹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었어요.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집 밖에다 화덕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불을 때서 해 먹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나도 아이 아빠가 아픈 바람에 고생을 좀 했어요. 어느 회사를 특별

6 빠루: 일본어로 바루(パール)라고 불리는 쇠 지렛대 혹은 크로우 바로 끝이 뾰족한 고리 형태로 생긴 공구

7 곤로(こんろ): 풍로 또는 화로. 석유나 전기 따위를 이용하는 취사용 도구(출처: 국립국어원)



〈사진 20〉 만석부두 당시 모습 (출처: 동구청)

하게 다녔다고는 못하지만, 돈만 많이 준다면 가서 일했어요. 여자인데도 차도 닦아봤고 집 짓는 재료가 들어오면 그것도 닦아서 페인트 칠도 했었어요. 주로 했던 일이 연안부두에서 도로포장 하는 일이었고요. 여기 만석동 사거리에 동남철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3년 정도 다니다가 다치면서 못 하게 됐죠. 오십이 넘어서까지 일을 했어요.

[사진 20을 보며] 여기 위로 보이는 큰 건물이 관유리공장이고 공장 앞 축대를 보니 뒤로 보이는 게 삼미사 같네요. 사진처럼 여기 앞바다

에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묶어 올리려면 여기 축대를 올라가야 했어요. 축대를 넘어가야 집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배 위에 보이죠? 이게 나무껍질을 벗겨서 옹기기 쉽게 묶은 단이에요. 이걸 들고 축대를 넘어가는 거죠. 연안부두 전⁸에는 여기가 정말 활발했어요. 영종 배가 들어왔으니까 영종 사람들이 쌀 같은 걸 싣고 와서 팔기도 하고요.

형편없었던 꿀꿀이 죽

동네 사람들 몇몇이 어디서 죽 같은 거를 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디서 사다 먹느냐고 물으니까 유리공장에 가면 판다는 거예요. 판유리공장이에요. 꿀꿀이 죽이라고 깡통이나 양재기⁹를 가지고 가서 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담배꽂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먹겠다고 그걸 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넣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옛날 육이오 때 같은 거죠. 거기서 어떤 때는 굵은 가락국수, 강냉이 가루 같은 걸 좀 끓여서 팔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거저 줘야 맞는 건데 그것도 돈을 조금씩 받더라고요. 삼백 원, 오백 원 정도를 주고 사 오면 그래도 먹을만하고 이삼백 원

8 1976년 만석 선착장 폐쇄 후 연안부두로 통합

9 양재기: 양은이나 알루미늄 따위로 만든 그릇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짜리를 사 오면 진짜 형편없어서 그런 걸 다 골라내고 끓여 먹어야 했어요. 나도 한 번 사 와볼까 했더니 아이 아빠가 그것만 가서 사 들고 집에 오기만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건 보고는 못 먹는 거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눈으로 보고는 못 먹는 거라고요. 옛날에는 쌀도 넉넉지 않았고 굶는 날이 허다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조선 밀이라고 있잖아요. 그 밀 껍질을 까서 사료로도 먹기 힘든 걸 곱게 빻아서 끓이거나 반죽해서 찌 먹는 집도 있었어요. 내가 큰 딸¹⁰을 가졌을 때 옆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학을 보내면 진짜 잘 가르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은 대학생이고 사위는 경찰이었어요. 그 집 아기가 딸이었는데 참 예뻐요. 내가 종종 아기를 보러 그 집에 가곤 했는데 새빨간 거를 이런 냄비에다 끓여서 사위도 한 그릇 먹고 온 식구가 먹더라고요. 나는 아기를 가진 상태니까 그게 먹고 싶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집 아줌마가 안 그런 사람인데 먹어보라 소리를 안 하더라? 물어봐도 내가 안 먹고 갈 텐데”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냥 머리를 한 통 쥐어 박는 거예요. 그게 뭐 줄 알고 그렇게 먹고 싶었냐면서. “엄마, 빨간 게 맛있게 생겼더구먼.” 하니까 엄마가 그건 밀 껍질을 곱게

10 보조 구술자 권기분 씨

빵아서 채로 치고 다른 건 아무것도 넣지 않고 뜨거운 물에다 익혀서 먹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으니까 나는 주지도 않고 맛있는 걸 먹더라고 한 거였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요만한 그릇에 쌀을 담아서 그 집에 가져다 주시고 그 가루 한 사발을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가루에 이것저것 섞어서 먹으라고 만들어주셨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그때 배가 고프니까 저걸 그렇게 먹었구나 하고 울었어요. 그 집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것만 가지고 끓였었거든요. 그 집 사위가 경찰 월급을 탔어도 아들 대학 공부를 가르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먹고 산 거죠.

보충 구술자, 권기분

채록일 : 2023.9.6.(1차), 2023.9.8.(2차), 2023.10.12.(3차)

채록자 : 홍승연

채록 장소 : 팽이부리마을, 구술자 김명자 씨 자택

구술자 권기분(65세, 여)은 1958년 만석동에서 태어나 팽이부리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구술자는 송현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초등학교 시절 배구부로 활동했다. 열 입곱살의 나이로 만석동에서 오동나무 상자를 만드는 공장에 다니다 서울로 이직해 같은 일을 잠시 하다 조부모님이 계시는 경상도로 내려갔다. 구술자의 동생들은 만석동에 있는 동일방직에서 일을 한 바 있다.

옛날에는 이 동네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 안 보다 바깥이 똥이 더 많았어요. 급하면 애들은 바깥에서 그냥 일을 봤나 봐요. 어른들은 돈을 벌어 먹고살아야 하니까 그런 일에 참견도 못 했고요. 네 애가 샐는지 내 애가 샐는지 알 수도 없죠. 그때는 대소변도 전부 하수도 내려가는 데서 보고 그럴 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흘러서 그리로¹ 가니까 거길 똥마당이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화장실이라고 해봐야 그냥 합판 쪼가리를 붙여서 칸칸이 막고 문도 없으니까 가마니를 하나 붙여서 문을 만들어서 그걸 화장실이라고 했어요. 그걸 한 칸 만들면 두서너 집에서 사용하고 그랬죠. 불편해도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런대로 살아야죠. 나는 오십팔 년 생인데 만석동에서 살면서 송현으로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어렸을 적에는 고무줄도 하고 공기도 가지고 놀고 친구들하고 바닷가도 가서 놀고 그랬어요. 여자애들은 주로 고무줄을 하고 남자애들은 구슬치기 같은 걸 하고 놀았어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무줄놀이할 때 부르던 오랑캐라는 노래는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어릴 때는 육이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무찌르자, 공산당. 무찌르자, 오랑캐.”² 그런 노래를 하면서 고무줄을 했던 기억이 나요.

1 북성포구

2 원곡은 ‘승리의 길(1951)’로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나’로 시작되는 당시 고무줄놀이에 유행하던 노래



〈사진 21〉 갯이부리말 골목길 현재 모습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그때는 바닷가에서 놀다 애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원목 통나무가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물 들어왔을 때 잘못하다 통나무가 돌면 그 위에서 놀던 애들이 물속에 빠져서 못 나오기도 하고 위험한 때도 있고 그랬어요. 거기서 놀다 물이 들어오기 전에 원목 나무를 밟고 부두 위로 올라와야 하고 그랬거든요. 남자애들은 짓궂으니까 원목 나무를 올라타서 어떻게 해보려고 장난치다가 다친 애들도 있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적에는 편물점이라고 실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실이 따뜻하다고 해서 스웨터를 떠다 입혔는데 바람이 부니까 실 구멍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바람이 술술 불어와서 더 춥다고 다시는 안 입을 거라고 그랬던 일도 기억도 나요. 그때는 어찌나 바람도 많이 불든지 춥기도 엄청 추웠거든요. 지금 추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추운 데다 동네에 가로등도 없었으니까 캄캄했어요. 지금이야 많지만, 옛날에 가로등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마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가로등도 들어왔던 거 같아요.

여기는 집집이 다 붙어있잖아요. 집집마다 소리가 다 들리니까 누구네 집 싸우면 구경도 가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가 엄해서 동네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못 나가게 하셨으니까 잘 못 갔지만요. 그러다 어찌다 한 번 나갈라치면 동생들이 금방 쫓아와서 어디 가느냐고 데리러 오곤 했어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는 배구밖에 안 했어요. 학교

배구부였으니까 아침에 학교에 가면 집에 여섯 시가 넘어서 왔었어요. 중학교는 입학은 했었는데 형편이 안되니까 못 다녔어요. 그때는 솔직히 육성회비만 못 내도 집으로 쫓아 보내던 시대니까.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쳤어요. 애들이 많은 집은 아들이래도 다 못 가르치니까 한둘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나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다 나가서 일했죠.

그러다 동일방직에서 중학교를 설립한다니까 전국에서 만석동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 동네에 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동일에서 야간 학교도 운영했거든요. 낮에 일하는 애들은 밤에 가고 밤에 일하는 애들은 주간에 가고요. 그러다 중학교는 시골에서도 어지간하면 다니게 되면서 고등학생들을 뽑았죠.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는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니까 시골에서도 중학교는 거의 다 보냈거든요. 당시는 시골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겠다고 아가씨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지금은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히 줄어든 거죠. 인건비도 비싸지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때 동일방직에는 체육관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동일방직 소속 배구³ 선수 중에 국가대표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배구가 야구나 다른 스포츠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3 동일방직 설립 배구팀: 1960년대 초 창단하여 여자배구팀은 1960년대 강팀으로 분류되었으며 1971년 재정난으로 태광산업에 인수되어 이후 흥국생명에 소속됨

나는 여기 주유소 건너편에 있던 동화제분에 다니다 말았어요. 거기가 우리 클 때 밀 쌀이 많이 나왔어요. 이 동네는 동일방직, 대성목재가 있었으니까 거기 다닌 사람들도 많았죠. 나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합판공장이나 그런 데는 못 들어갔고 조그마한 가내수공업같이 하는 공장에 다녔어요. 옛날에는 가내수공업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세관 있는 건물 옆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몇 개 있었죠. 지금 주유소 있는 곳 옆으로 해서요. 말하자면 사료 공장을 하면서 합판을 조금 하는 공장들이죠. 내가 다녔던 곳은 합판도 만들고 오동나무로 인삼차 같은 걸 넣는 곱 있죠? 그런 걸 만들었어요. 당시 22킬로 짜리 밀가루 한 포가 사천 원 할 당시였는데 공장에서 한 달 동안 죽이라고 일해야 육천 원 벌었어요. 그걸 받아서 국숫집에 가서 국수 면을 빼달라고 그래요. 그걸 말려서 주면 집에서 국수도 삶아 먹고 쌀가지고 죽도 끓여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김치나 많이 먹었겠어요. 처음에는 김치도 못 넣고 그냥 죽을 끓여서 먹다가 나중에 김치죽도 끓여 먹고 그랬어요.

이 동네는 전자제품 부속 때우는 그런 소일거리가 많아서 그걸 주로 많이 했어요. 전기 고데기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철사처럼 생겨서 손잡이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만한 판에 납으로 녹여서 붙이는 그런 일을 했었죠. 다른 데서 일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일들이 많아서 그걸 했었죠. 그건 전기를 써야 하는 일이니까 각자 집에서 했었어요.

골목에서 모여서 신발 밑창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한 집도 있었고. 그때는 여기 부둣가는 길에 철길이 있었으니까 철길 따라 놀다 다치기도 하고 그랬죠. 여기 애 중에 배 타는 걸 가르치는 해양고등학교를 간 애들도 당시 많았어요. 잘 간 애들은 외양선도 따라다녔고 배를 타는 애들이 많았죠.

내가 공장에 들어갔을 때가 열일곱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학교에 못 다니는 애들이 더 많았어요. 보통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는 애들이 열 명 중에 두세 명이 될까 말까 했어요. 나는 팔 남매에 당시 우리 집이 좀 어려웠으니까 학교 졸업하고 일을 한 거죠. 그러다 인삼차 곶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서울로 갔어요. 아모레 화장품 있는 근처였어요.⁴ 그러다 집에 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경상도로 갔어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모셨어요. 당시에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내려갔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 뒤로 할아버지를 좀 돌보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혼자 있다가 고모가 계셔서 대전으로 가서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대전에서는 식당 일을 했었는데 일하다 다친 후로 다시 인천에 왔어요. 지금 이 동네로 온 것도 이십 년이 넘었어요. 지금 여

4 구술자 김명자: 딸 둘이 방을 얻어서 잔다는데 내가 의심스러워서 반찬을 가지고 갔거든. 그랬더니 칸을 막아서 가마니를 바닥에 깔고 그런 데서 자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그래서 내가 가자고 해서 보따리를 싸서 여기로 같이 내려왔어요.

기서 살다가 이 일대를 철거하면서 보상을 받아서 나간 거죠. 그때 보상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나갔고 안 나간 사람들만 열 한 평, 아홉 평 그런 곳에 사는 거죠. 그것도 많지 않고 거의 다 나갔어요.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밖에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원주민은 몇 없고 전부 외지인들이예요.

80 한국 전쟁과 피란길

평안남도 진남포시에서 인천시로

신분증에는 삼십팔 년생으로 되어있지만 내 본 나이는 삼십육 년 생이에요. 여기 왔을 때 열다섯밖에 안 됐었는데 군대 가면서 신분증을 냈다가 세 살 적은 거로 날조가 됐어요. 그때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나고 자랐어요. 진남포 시내에서 중학교에 다니다 육이오가 터지니까 1950년 12월 5일에 이리로 나온 거죠. 진남포 시가 항구도시거든요. 나는 집이 시내였으니까 30리 밖 시골에 먼저 피란 가 있다가 배를 타고 나왔어요. 지금도 나온 날짜는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원래 오 남매인데 여동생들이랑 어머니는 북에 남겨놓고 삼부자만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는 기계 배도 얼마 없었으니까 풍선 하나를 타고 나왔죠. 이 마을 사람, 저 마을 사람 배가 있으면 다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우리 삼부자는 황해도 웅진에 떨어졌했어요.

그때는 금방 수복된다고 수복되면 얼른 고향으로 다시 간다고 중간에 내린 거죠. 배는 인천까지 내려갔는데 우리는 웅진서 몇 달 있었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잠깐 나온다고 나온 거였거든요. 금방 집에 들어갈 줄 알고 나온 건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전

부 곧 돌아간다고 가까운 웅진이나 인천에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 인천에 피란민이 많아진 거거든요. 우리 삼부자는 웅진 용호도라는 섬에 있었어요. 수산학교도 있었던 섬이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육지로 먹을 거 구하러 들락날락했었죠. 남쪽으로 내려가다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식량을 구하러 육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거기 몇 달간 체류하면서 형은 군대에 가버리고 아버지도 어딘가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 남쪽으로 나오게 된 거죠. 처음은 목포에 몇 달간 있다가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이 동네에 피란민이 많다고 해서 누가 어디서 왔다더라 그런 소식도 다 들을 수 있어서 가족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또 우리 집안 사람이 객선을 가지고 여기로 넘어와서 장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형은 살기 힘들니까 군대에 지원해서 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피란 나와서 가족하고 떨어지면 더 힘들잖아요. 누가 보급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는 양놈들한테 끌려갔다가 도망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양놈들이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노무자로 일을 시키고 그랬던 거죠. 도망 나오셔서 HID¹ 기관에도 좀 계시다가 이북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거 같더라고요. 이전에 팽이부

1 HID(Headquarters Intelligence Detachment): 육군첩보부대

리 만석동에 HID가 있었거든요. 여기 아파트² 길 건너 사거리에 공터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HID가 있었됐어요. 규모가 제법 컸죠. 거기에 본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HID에서 적진으로 다니는 선박을 탔으니까 정확히 몇 번이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 북에 왔다 갔다 하신 거죠. 엔진이 두 개 달린 배를 타고 다니셨는데 크기는 작았어요. 구라망³이라고 그랬는데 엔진이 많으니까 빠르고 소리가 아주 시끄러운 밴데 그걸 타고 몇 번 다녀왔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말고도 이 동네에 HID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앞집 살던 사람도 거기 다녔었고 동네에 많았죠.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여기 아파트 정문 입구에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 집들이 짝 있었어요. 그때는 천막촌처럼 다닥다닥 뭐 한 뼘만 있어도 하꼬방처럼 만들어서 살았죠. 나도 거기 살다가 이사를 왔고요. 지금은 다 철거돼서 흔적도 거의 안 남아있지만 뭐 한 두 집 남았으려나. 기와집도 한 두 집 있었지만 대부분 슬레이트로 지붕을 친 그런 집들이었어요.

나는 이산가족 찾기도 신청 안 했어요. 우리 형님이 지금 미국 사

2 만석동 해비치 아파트

3 구라망(グラマン):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되었던 미국 그러먼 사의 전투기로 엔진 소리가 시끄러운 배를 지칭했던 것으로 추정



〈사진 22〉 당시 집이 있었던 만석동 풋살 경기장 전경 (출처: 편집자 직접 촬영)
주: 만석비치타운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 풋살장 옆으로 공원이 자리 잡고 있음

시는데 김일성 시절에는 미국에서 북한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때는 교포들이 고향 간다고 미국에서 북한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이 오히려 가족들한테 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가족들이 괜히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형님도 나도 그때 가족들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엇을 해요. 아버지는 여기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고향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80 만석동에 대한 기억

내가 살던 곳, 사삼번지

나는 여기 온 다음부터는 쪽 만석동에서만 살았어요. 외국에 나가 있던 3년만 빼고는 여기서 살았어요. 내가 월남에서 2년, 사우디에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똥마당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사삼번지라고 했어요. 사십삼 번지. 똥마당에 언덕이 하나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 집도 없었어요. 전부 영국 애들 묘지였지. 언덕 꼭대기에 지금 빌라 하나가 있잖아요. 그 빌라 자리가 묘지예요. 옛날에는 빨간 흙으로 덮여서 아무것도 없었고 영국 애들 묘지만 있었어요. 41, 42, 43번지에서 왔다 갔다 산 거죠. 그 산 밑으로는 북성동이거든요. 도로 기준으로 한쪽은 북성동이고 반대쪽은 만석동이에요. 거기 한전이

있잖아요. 한전은 또 만석동이고, 복잡해요. 모양이 이상하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은 신도시가 됐지만, 그때는 시골이었죠. 검암동에 사셨어요. HID 나오시고 나서는 그 동네에서 술장사했거든요. 지금도 그 길옆을 지나갈 때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아버지가 장사하던 자리가 남아있어요. 큰 대로변에서 했거든요. 그땐 거기 기차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있었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화투 치고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전에는 물이 나가면 저 멀리 편에 바지락, 조개도 캐러 다녔어요. 북성동 저 언덕까지. 지금은 범선이 다니는데 여기 인천제철까지 범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이 동네에 화장실도 없었어요.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가죠. 아침에 다 한목 가야 하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북성포구 쪽은 똥똥 떠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똥마당이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팽이부리마을 쪽에 철도가 있었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 철길로 석탄 실은 기차가 다녔었는데 기차간에 올라가서 푸대가 있잖아요. 거기 푸대에 철사를 끼워 넣으면 앞이 이렇게 벌여져요. 그럼 석탄을 거기에 담아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밑에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도둑질을 하는 거죠. 지금 북성

포구 자리 있잖아요. 육이오 때는 거기 미군 보급창이 있었어요. 보급 창은 석탄일 땀거든요. 무연탄이 아니라 유연탄이라고 기름진 걸 땀었어요. 예전에는 거기 판유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군산으로 갔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자리가 판유리 자리예요.

거기는 갈매기가 많아서 팽이부리라고 불렀거든요. 그때는 집들이 많이 없을 때니까 갈매기가 많이 들어 와있었거든요. 만석부두서부터 9번지까지를 지금도 팽이부리라고 그래요. 팽이는 갈매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거기 팽이부리 쪽인데 우리가 피란 나와서 보니까 잠수함⁴을 만들다 만 게 있더라고요. 저기 두산 인프라 건너에 사택 몇 집은 남아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철길 옆에 43번지 쪽으로 대장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체국 옆에 하나 남아있죠. 지금 여기 우리 아파트 뒤편으로 동일방직 담벼락이 있죠? 그 담벼락 있는 길 양옆으로도 사택이 있었어요. 전기회사⁵ 사택인데 옛날 일본 집식이죠. 길게 지어가지고 천장은 다 통하는 거예요. 칸만 나뉘어 있고 지붕은 다 통하는 거죠. 여느 집들은 다 그랬어요. 지금은 다 고쳐서 살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4 조선기계제작소에서 만들었던 잠수함

5 도쿄시바우리 전기회사

대성목재가 있었던 자리, 만석비치타운

나는 평생을 여기 아파트 정문 앞 어린이 공원 쪽에서 살다가 이게 지어지면서 이리로⁶ 이사를 왔어요. 지금 이 아파트 자리가 예전 대성목재 자리였어요. 여기 아파트 1, 2, 3동 쪽은 저수지처럼 물을 저장해 놔거든요. 바닷물이 빠질 때 도크를 잠가서 저수지처럼 만든 거죠. 인천은 8부두도 그렇고 전부 간만의 차가 7메타 이상이니깐. 여기 아파트까지 옛날에는 바닷물이 다 들어왔어요. 원목을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끌고 들어 오는 거죠. 옛날에는 만석부두부터 지금 여기 매립 도로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삼미사는 목재를 제재하는 데고 여기는 합판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옛날에는 각 회사에 해상반이 있었어요. 범선이 들어오면 그걸 내려서 원목을 끌어올리는 해상반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땅을 다 매립해서 아파트를 지었지만, 그때는 물이 여기까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이제 지어진 지 이십 년이 됐거든요. 여기 앞에 오 층짜리 만석 2차가 지어진 지 삼사십 년 됐을 거예요. 거기도 메꿔서 지은 거죠. 그다음에 삼차를 짓고 여기도 매립해서 지은 거죠. 옛날에는 정말 날이 추웠어요. 그래서 땀감 같은 걸 얹어서 땀나무로 썼었어요.

6 만석비치타운 아파트



〈사진 23〉 당시 대성목재 원목 저장소 (출처: 인천광역시사(2002))

옛날에는 여기서 뗏목 타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작약도도 많이 갔었어요. 작약도 뒤로 가면 조개도 쫓았고 유원지랑 먹을 데도 있고 그랬죠. 그래도 거기 유원지가 한 십일 년 이상은 했을 거예요. 풀이 있었으니까 수영 같은 건 안 해도 유원지를 제일 많이 갔어요. 월미도는 당시 미군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거기는 못 갔고 작약도로 주로 갔죠. 작약도에 고아원도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꽤 오래된 고아원이었는데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나요. 우리 외사촌들이 애들끼리 피란을 나와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죠. 피란 와서 부모하고 떨어진 친구들도 거기서 살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고아원에도 애들이

많았어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선박일

당시 황해도 사람들은 주로 목포로 갔거든요. 나도 그래서 목포에 조금 있다가 인천 만석동에 피란민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거기서 가족을 찾을 수 있다길래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이 동네 피란민이 많으니까 소식이 다 들리거든요. 어디서 누가 나오고 지금 뭐 하고 산다더라. 그런 소식을 다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다 나도 아버지를 만났고요. 그때 내 나이가 열다섯 됐나. 나이가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선을 타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오래는 못했지만요. 오징어를 잡으러 갔다가 배가 바위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배가 파손이 돼서 침몰했거든요. 그때는 동해, 주문진에 오징어가 엄청나게 많이 낚여요. 오히려 잡는 사람이 모자랄 정도였으니까 별이가 좋아서 사방에서 많이 모여들었어요. 오징어 배가 바다에 가득해서 동해가 전부 반짝반짝 불로 가득 찼었어요. 그때 탔던 배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2톤짜리도 있었고 사람들 열댓명 타는 배들도 있었고. 당시는 그렇게 큰 배들은 없었잖아요. 배가 못 쓰게 됐으니까 어떡해요. 어떻게 건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의 얻어먹다시



〈사진 24〉 만석동 소재의 가게에서 구술자 (출처: 구술자 기증)
만석비치타운 정문 쪽으로 있었던 잡화가게. 가맥집처럼 맥주와 간단한 안주도 팔았음

피 해서 살았어요.

여기는 해 먹고살 게 없으니까 배 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동 아니면 배 타는 거지 딴 게 있나. 외항선이 들어오면 배에서 하역하는 일 하고 배 타는 일 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어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다른 건 없고 승선배라고 하는 게 많았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여기 대성목재로 원목을 끌어다 오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여기 삼화제분 하기 전에 학교도 있었는데 아마 성광고등학교 일 거예요. 지금도 보면 건물이 크잖아요. 그러다 나는 육십육 년에도 월남을 갔었어요. 세신 공사라는 회사에서 육 개월 있다 양놈 회사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이공에서 육 개월 있다가 캄남⁷이라는 섬으로 갔어요. 캄남에는 옛날 미군사령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기서도 월남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자 지원해서 간 거죠. 기술자로 간 셈이죠. 여기서 보다 수입이 훨씬 좋으니까 돈을 벌러 간 거죠.

나는 월남, 사우디를 3년 갔다와서는 배를 사다 부리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화물선을 예인선들이 끌고 다녔거든요. 짐을 실은 배를 몇 척씩 끌고 다녔어요. 예인선이 크지는 않아도 엔진이 힘이 있으니까 짐을 실은 배를 서너 척씩 싣고 다닐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바

7 베트남 호이안에 있는 섬

지선이니까 괜찮지만, 그때는 백 톤, 백오십 톤 정도 싣는 배 서너 척을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 여기 인천 항만에 도크⁸가 생기면서 배가 많아지니까 내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들 거죠. 그래서 배를 싸게 팔아 넘기고 남의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빛이 좀 생겼어요. 그때쯤 이 동네는 바지선⁹들이 다녔거든요. 철선이 생기면서 배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큰 배들도 다 혼자 탔어요. 빛이 없을 때는 두 사람, 세 사람도 타고 같이 일하러 다녔는데 그때 생긴 빛 때문에 혼자 타야 하니까 기계로 일을 했어요. 감고 내리는 기계가 있거든요.

바지선이라는 건 주로 화물선인데 천 톤 정도 싣을 수 있었는데 나는 주로 건축자재를 싣고 다녔고요. 당시는 섬을 개발하는 곳이 많았거든요. 섬에 배를 대려면 항만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당시는 그런 공사가 많았으니까 그런 데 건축 자재를 납품하러 다녔어요.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다 다녔어요. 삼척에 가스터미널¹⁰이라고 알아요? 내가 일흔아홉까지 일을 해서 작업을 끝마치고 왔어요. 거기는

8 도크: 선박 건조와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1974년 완공된 인천항 제2 도크를 의미

9 바지선(barge): 항만공사에서 모래, 토석 등 자재나 준설토 운반에 이용하는 부선. (출처: 해양수산 용어 사전)

10 삼척 LNG 터미널: 선박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의 저장, 기화, 송출 등을 위한 복합허브시설

가스 저장소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서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끝을 낸 거죠.

이 동네는 보통 배를 처음 샀을 때는 고사는 지내는데 어선들이 많이 하지 화물선은 더러 안 했어요.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나 한 번 했었나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굶을 하는 게 비싸거든요. 특히 무당들은 돈도 많이 줘야 하고, 그래도 큰 배 가진 사람 중에는 무당을 불러다 크게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고사는 개별적으로 지내는 거죠. 이 동네는 용왕제라고 해서 북성포구 쪽에서 매년 지냈었는데요. 몇 년 사이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건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무사하게 귀환하라고 지내는 거죠. 원래 고사라는 게 선원들의 무사 안정을 빌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문통에 대한 기억

송현국민학교 쪽에 수문통이 있었죠. 축대로 해서 양쪽에 쪽 길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너비가 한 삼십 미터 됐나. 수로 양쪽에 시장도 있었고요. 옛날에는 동인천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어요. 장마철이 되면 시장이 뜰 정도로 넘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복개한 지가 거의 이십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여기 동일방직 앞에도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

서 사람이 못 다녔어요. 조금 사리라고 사리 때는 물이 많이 들어 오
 잦아요. 그때 비가 오면 물이 도로로 넘쳐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만조죠. 1년 중 백중사리일 때 최고 많이 들어오고 보통 보름 때 물
 이 많이 들어오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수위가 높지 않고요. 그래도 비
 가 오면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갈 정도로 넘쳤으니까 비가 올 때는 사
 람이 못 다녔어요. 여기 동일방직 앞에도 비가 오면 물이 다 들어와서
 못 다니고 그랬거든요. 수문통 시장도 복개하면서 덮어버렸죠. 그때
 하수도 공사도 싹 다 했어요. 그래도 시장하고 집들은 그대로 있고 요
 즘에도 장사는 하긴 해요. 예전만큼 많이 안 해서 그렇죠.

시장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육이오가 끝나고는 시장에서 꿀꿀이
 죽이라고 팔았어요. 재료에 상관없이 이것저것 넣고 그냥 한 번에 끓
 여서 먹는 걸 꿀꿀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땐 다 그런 걸 먹고살았어
 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그거라도 먹고살았어요. 그래도 그건 맛이
 괜찮아요. 그래도 고기가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시장에 가면 그런
 걸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꿀꿀이죽 얼마치를
 달라고 하면 돈에 맞게 주는 거죠. 나는 중앙시장¹¹에서 그걸 더러 사
 먹었어요. 이게 양념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갖다 끓여서 파는 거
 죠. 그런데 그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어요. 내가 부산

11 송현동 위치

에 가니까 부산에도 꿀꿀이죽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갈치 시장에 양미리 도매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걸 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길 말

특별히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데 옛날이야기는 전부 고생한 이야기죠 뭐. 내가 살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던 데가 그리 우니까 더러 오기도 하겠지만 나도 우리 집터나 알지 찾기 어렵죠. 우리 집이야 축구장 있는 데니까 바로 알지 지금 철거했던 곳에 집을 찾으라고 하면 못 찾죠. 동네가 다 바뀌었으니까. 이 동네 하면 전부 다 고생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 전부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보충 구술자, 나형식

- 채록일 : 2023.10.17.(1차), 2023.10.19.(2차)
- 채록자 : 홍승연
- 채록 장소 : 만석비치타운 내 경로당

구술자 나형식(71세, 남)은 1951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1976년도에 친척이 거주하고 있던 북성동으로 이주했다. 삼미사와 인천제철에서 임시 근로자로 일을 하다 생계를 위해 가족들만 두고 외국에서 건설일에 종사했다. 1986년에 돌아와 인천에서 건설 일을 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2016년도에 은퇴했다. 비치타운 앞에서 개인 굴막을 운영했으며 굴의 채집과 손질 일은 주로 아내가 맡았으며 주로 밤에 하던 일이라 구술자도 굴막 일을 도왔다. 김철권 씨 구술 당시 옆에서 만석동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 구술해 주었으며 주로 80년대 만석동에 대한 이야기를 구술했다.

나는 고향이 경북 영주예요. 거기서 살다가 우리 오촌 당숙이 북성동에 사셨거든요. 여기 와서 삼미사하고 인천제철을 잠깐 다니다 말고 해외로 나갔어요. 내가 북성동에 온 게 76년도인데 일 년 만에 해외로 나갔다가 87년도에 다시 왔으니까 해외에 상당히 오래 있었죠. 삼미사랑 인천제철은 거의 임시직이었죠. 그땐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냥 들락날락 몇 개월 하다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임시직으로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쉽고 그랬죠. 삼미사는 원목 회사였으니까 원목 자재를 자르는 일이라 뒷일 같은 걸 봐주는 일을 했었고 제철에서는 기계부에 있으면서 천장 크레인 같은 거 수리하러 다니고 그랬죠. 그러다가 사우디에 건설 일을 하러 가서 팔 년 정도 있다 왔어요. 혼자 돈을 벌러 간 거니까 가족들은 여기 만석동에 있었으니까 갔다 돌아온 거죠. 와서는 건축업을 좀 했고요. 당시가 87년도, 88년도 그랬으니까. 인천이 그때쯤부터 건축 붐이 막 일어나서 신도시가 생길 때예요. 송도¹고 뭐 사방에 생길 때니까 건축 일이 많아서 몇 사람씩 데리고 다니면서 각자 분야를 맡아서 하고 그랬죠. 그걸 계속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둔 게 한 칠 년 정도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굴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거들면서 일을 했죠. 이 동네는 굴 까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걸 하려면 연안부두

1 90년도 매립승인 후 91년도 착공

에 상점을 하나 맡아놔야 해요. 여기서 까기만 해서 소비가 다 안 되니까 연안부두에 도매상 집을 하나 맡아놓고 아침에 차로 갖다 주면서 팔아야 하는 거죠. 굴을 까면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물건을 대주고 남은 여유분은 여기서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보통은 밤에 까는데 밤 열두 시가 돼서 바다로 나가면 새벽까지 까는 거예요. 한 관²이 사키로 짱아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일 점 오관. 그러니까 한 육 킬로 정도 까고 나는 한 사키로 정도 짱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거든요. [손을 보여주며] 손이 다 이렇게 툭툭 붙어터지고 다치고 굳은살도 박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만둔 지 이년 정도 됐어요. 재작년까지 하다가 작년, 올해는 안 했어요.

그전에는 여기로 굴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김장 때는 없어서 못 팔았죠. 여기서 사면 굴 원액을 사는 거거든요. 굴이라는 거는 민물이 들어가면 크기가 금방 불어나요. 물을 먹으면 근³이 많이 나가니까 같은 값에 조금 밖에 못 사죠. 연안부두 같은데는 민물을 약간 타니까 그럼 굴이 커지면서 땡땡해지거든요. 흐물흐물하던 것도 땡땡해지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게 작업하면 도매상에서 받지를 앓으니까 여긴 원액 그대로 가서

2 관(貫): 3.75kg

3 무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아닌데 그전에는 보통 시월부터 까서 가장 성수기는 김장 한 이십일 전, 십이월이 제일 절정이고 대목은 설 명절이죠. 그러다 보름이 지나면 서서히 안 되다가 이월 말 삼월 초가 되면 중단하는 거죠. 올해도 하는 집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전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아직 서너 집은 하고 있어요. 힘이 들어서 굴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못 하는 일이죠. 빨밭에 다니면서 이만치 밭이 빠지는 데서 굴을 주워가자고 배에 올려 싣자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하니까 까는 사람도 적고, 굴 사 킬로짜리 한 포대 해가지고 와서 까면 이만 원이 남아요.

우리 집사람도 직접 잡아 와서 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었죠. 물이 있을 때 배로 나가서 물이 빠지면 내려서 캐고, 또 물이 들어올 때 실어서 들어 오는 거죠. 개인 배가 아니고 굴 배라고 사람들 몇몇을 실어서 다니는 배가 있었어요. 그때 여기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일을 했어요. 옛날에 별이가 없을 때는 바다에 나가서 배 위에서 자고 또 굴을 캐고 그렇게 이틀씩 하는 일도 있었죠. 다른 일거리 없는데 굴이 잘 팔리니까 그때는 그렇게도 했었어요. 요즘은 그 반도 안 잡히고 힘드니까 그만두는 거죠.

옛날에는 여기서 조개도 많이 캐고 있었는데 지금은 항만이 오염되

어서 없어요. 영종도에 가면 삼목도라고 있거든요. 거길 막아서 인천 공항을 만드는 바람에 바닷물이 이제 이리로 안 들어와요. 물이 북항까지 올라갔다가 확 내리쬐는 힘에 쫓기고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야 하는데 물이 팔미도로 돌아 들어오니까 고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오염되고 그렇죠. 정확히 안 되니까요. 십 년 이상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예전에는 영종도 굴이며 조개가 참 맛있었는데 이제는 못 먹죠. 그래도 배 가지고 있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관련 일을 안 한 사람은 이 동네에 살았어도 보상이 없었구요.

칠십년대에는 이 동네가 공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월동에서도 이리로 회사를 많이 다녔죠. 바닷가로 목재소가 있고 대성목재 있고 삼미사 뭐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았고 인천제철도 있었고 동국제강, 모터 만드는 회사 뭐 바닷가로 공장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전에는 사람이 정말 많이 살았죠. 그 길에 대성목재 다니면서 자취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살았어요.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인천 여기저기서 이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성목재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아파트 정문 축구장 쪽에 집이 정말 많았는데 주로 거기에 살았어요. 다 하꼬방인데 벽하고 벽 사이도

없이 그냥 그 옆을 이어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지붕도 통으로 슬레이트 하나를 치워버리고, 자리만 있음 방을 하나 만든다고 도로고 뭐고 없이 옆으로 계속 붙이고 붙여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도로고 뭐고 허가도 안 받고 막 만들어서 세를 줬어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여력이 안 되면 온 식구가 다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죠. 집이 작아도 세 집, 네 집씩 들어가 있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일 년, 이 년 계약하지만, 그때는 서너 달 되면 나가라고 돈 올려달라 그러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석 달간 육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십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기도 그랬죠. 그때 월급이 육만 원이었는데 세를 올리니까 나도 여기 만석동에 살다가 또 길 건너 오십사 번지에 살다가 또 북성동, 북성 제2공원, 자유공원, 화수공원 밑에 살다가 결국은 여기로 돌아와서 살게 된 거죠.

나도 일곱 평 됐나. 나도 나중에는 집을 사서 세를 줬었는데. 그 집도 측량하니까 불법으로 점용했다고 해서 천뱃백만 원 물어줬었거든요. 그러다 이 동네 공장들이 나가면서 먹고 살길도 없어졌어요. 나도 빚을 지고 비싸게 샀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부작용이 좀 있었죠. 집을 사고 딱 이 년이 지나니까 대성목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집도 팔려고 했었는데 몇 년 동안 팔리지도 않더라고요. 새로 주택도 많이 짓고 하니까 여기가 낙후되면서 자연스럽게 다 없어진 거죠. 그때는 승기천 쪽으로도 그런 집들이 많았고 장사도 잘되고 사

람이 많이 북적거렸었는데 송도고 연수동 뭐 그쪽으로 자꾸 여러 가지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쓸쓸해졌죠.

[참고문헌 및 사이트]

참고도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2002)

화도진 문화원. 물길 따라 동구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인천광역시, incheon.go.kr

인천광역시 동구청, icdonggu.go.kr

「가마니」©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라인 발췌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159>)

「민챙이」©해양환경정보포털 온라인 발췌

(<https://www.meis.go.kr/mes/gallery/5/board.do>)

「바지선」©해양수산용어사전 온라인 발췌

(<https://www.mof.go.kr/dictionary/selectDictionaryList.do?menuSeq=928>)

인문도시연구총서 10

만석동 사람들

정성자·김명자·김철관의 삶

초판 1쇄 인쇄·2023년 12월 31일

초판 1쇄 발행·2023년 12월 31일

엮은이·인천연구원

펴낸이·박호균

펴낸곳·인천연구원

주소_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_ 032-260-2600 팩스_ 032-260-2799

URL_ <http://www.ii.re.kr>

디자인·도서출판 다인아트

© 인천연구원, 2023

Printed in Korea

ISBN 979-11-6870-195-3 93990

※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시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